

기업 지식재산 기반 우수제품 발굴

전북도, 사업화 우수 10대 특허 인증서·현관 수여·경영유공자 포상·특허기술 사업화 추진사례 발표

전북도와 한국발명진흥회 전북지식재산센터가 2021년 지식재산 기반 사업화 우수 10대 특허 인증과 함께, 유공자포상 수여식을 지난 22일 진행했다.

도와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와 전북지식재산센터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인증서 수여와 유공자포상, 특허기술 사업화 추진사례 발표가 진행됐다.

'사업화 우수 10대 특허 인증사업'은 전북도가 특허청과 함께,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작한 사업으로, 지역 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기반 우수 제품 발굴 및 지역 우수특허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총 26건의 특허가 접수돼 내·외부 전문 평가위원회의 2차에 걸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우수 특허로 선정됐다.

이날 10대 특허 인증서를 받은 10개 기업은 특허기술의 사업화를 통해 120명의 고용 창출, 매출 271억여 원 증가, 수출 8억 원, 투자유치 110억여 원 등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전북도와 한국발명진흥회 전북지식재산센터가 2021년 지식재산 기반 사업화 우수 10대 특허 인증과 함께, 유공자포상 수여식을 지난 22일 진행했다.

이 중 9개 기업은 도와 특허청을 통해 지식재산의 권리와 사업화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받아 어려운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성과를

를 창출했다. 도와 특허청은 향후 인증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IP스타기업, 중소기업IP바로지원, IP금융연계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전북의 대표 IP기업으로 집중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인증서 수여에 이어, 지식재산 창출 및 경영 활성화 유공자 3명에 대한 포상 수여가 진행됐다.

전북도지사 표창에는 내소날씨엔디(주) 이준 대표이사, 특허정장 표창에는 (주)에코스이엔씨 최경호 전무이사가 포상됐다.

고준호 한국발명진흥회 상근부회장은 "한국발명진흥회는 이번 전북지역 사업화 우수 10대 특허 인증사업을 계기로, 기업의 우수특허 기술이 한국을 대표하는 K-특허·K-테크가 되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송금현 도 혁신성장정책과장은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은 전북 산업 생태계의 체질 강화를 위한 성장동력의 중요한 축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북도는 기업들의 지식재산 권리와 사업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성인 문해교육 작품집 발간

전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시화전 출품작 등 181점 수록

전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원장 김학권)이 성인 문해교육 시화전에 참가한 180여 명 어르신의 시화전 출품작을 모아 작품집을 발간했다.

이번 작품집은 2021년 전국·전북 성인 문해교육 시화전 출품작 87점과, 성인 문해교육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선거 짧은글 공모전 출품작 94점으로 구성돼 있다.

작품집명은 '이제야 알았네 이조는 길'로, 늦깎이에 시작한 글공부로 지난날 자신들의 추억을 회상하며,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하는 소박한 삶을 담은 작품집이다.

작품집은 도내 14개 시·군과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및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전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누리집(www.jbpe.or.kr)을 통해 온라인 전시회로도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

다. 한편, 진흥원은 지난 1일 '전북도 문해 교육센터'로 지정돼 도내 문해 교육사업을 일원화하고, 국비 확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울러, 2021년 지역 맞춤형 문해교육 특성화 시범 사업 공모에 선정되며, 도내 지역별 특성을 살려 개발한 '전북형 문해교육 부교재'를 11월 중 배포할 계획이다.

김학권 진흥원장은 "문해 학습자들이 한 글자 한 글자에 담아내는 새로운 삶에 대한 도전을 응원한다"며 "전북도 문해 교육센터로서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문해교육 대상자 발굴, 기관 간 연계 체계 구축 등 도내 문해 교육사업의 구축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단풍철 코로나19 방역·식품위생 강화

전북도가 가을 단풍철을 맞이해 코로나19 방역과 식품위생 강화 캠페인에 나섰다.

도는 지난 21일과 22일 양일간, 가을 단풍철과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앞두고, 코로나19 지역 감염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도내 관광지과 등산로 주변 음식점을 대상으로 홍보·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도는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마스크 착용, 사적모임 인원 제한 준수 등 식당·카페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집

중 점검·계도하는 한편, 위생관리를 위한 '손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식중독 예방수칙을 홍보했다.

이와 함께, 전북도는 식당·카페 등에 백신접종 완료자 포함 좌석 안내 표식도 배부했다.

이울러, 도는 모임 인원 초과 요인을 방지하고, 영업자의 편의 도모와 도민이 안심하고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삼각대 표식 2만5,000매를 제작해 시·군에 배부할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도 금고 지정 신청 추진

전북도가 차기 도 금고 지정 절차에 들어갔다.

도는 도 금고 약정기간이 2021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차기 도 금고 업무를 수행할 금고 지정을 위해 도보와 누리집에 도 금고 지정 신청 공고를 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도 금고는 '전라북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개경쟁을 통해 지정할 계획이다.

도는 오는 11월 4일 금고지정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고, 11월 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 금융기관 제안신청서를 접수받아, 11월말 전북도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 1순위 금융기관을 제1금고(일반회계)로, 2순위 금융기관을 제2금고(특별회계·기금)로 지정한다.

금고 지정 신청에 참여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지방회계법' 제3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전북도 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이다.

단, 지방회계법 제3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은 전 전북도 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도 특별회계·기금(제2금고)에 한해 참여할 수 있다. /유호상 기자

종사자 역량 강화·노인일자리 활성화 도모

한국시니어클럽협회 전북지회 종사자 워크숍 개최... 시상·세미나·유튜브 활용 토론 진행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시니어클럽형 사회서비스형사업'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한국시니어클럽협회 전북지회 종사자 워크숍이 지난 21일 전주도시 혁신센터에서 진행됐다.

전북도가 주최하고, 한국시니어클럽협회 전북지회(지회장 김효준) 주관으로 진행된 워크숍은 시니어클럽 종

사자의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 맞춤형 노인일자리 창출과 활성화 도모를 위해 다양한 주제로 매년 개최된다.

종사자 역량 강화를 통해 코로나19의 시대적 변화에 맞는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의 새로운 장 마련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을 활성화하고자 기획된 이번 워크숍은 종사자 시상, 세미나,

유튜브 생중계를 활용한 종사자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날 세미나는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진형성 도의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전북지역본부 이해수 본부장, 전북노인일자리센터 장우철 센터장, 전주시니어클럽 김효춘 관장이 참여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시니어클럽형 사회서비스형사업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김효춘 전북지회장은 "노인일자리사업의 새로운 유형으로 점차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사회서비스형사업의 발전 방향에 대한 토론을 통하여, 코로나19를 넘어 노인일자리 사업의 새로운 일상을 위한 뜻깊은 시간이 되도록 준비했다"고 워크숍의 취지를 밝혔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전북도에 맞는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길 바란다"며 "노인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애쓰시는 시니어클럽 종사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와 한국발명진흥회 전북지식재산센터가 2021년 지식재산 기반 사업화 우수 10대 특허 인증과 함께, 유공자포상 수여식을 지난 22일 진행했다.

조직변경공고

본 회사는 2021. 10. 21. 임사원총회에서 사원 전원일치로 주식회사 반석건설로 조직을 변경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조직변경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 10. 25.

유한회사 반석건설
주소: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북 1길 29(도통동)

대표이사 조성웅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전주매일의 창간 13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전주교육대학교
총장 김우영

전주매일의 창간 13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진안군농업기술센터
소장 고경식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